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으로 민족사적대경사, 특대사변을 안아온 핵과학자, 기술자들을 위한 축하공연과 축하연회 성대히 진행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으로 민족사적대경사, 특대사변을 안아온 핵과학자, 기술자들을 위한 축하공연이 인민극장에서 성대히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리설주동지와 함께 관람석에 나오시었다.

전체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은 백두의 담력과 배짱, 사생결단의 선군의지와 불면불휴의 애국헌신으로 병진의 험로역경을 앞장에서 헤치시며 반만년민족사에 특기할 대경사들을 련이어 안아오시여 주체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서 떨쳐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터쳐올리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었다.

출연자들은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이 탄생한 경사로운 9월에 수소탄의 거대한 퇴성을 가장 장쾌한 승전가로 어머니조국에 삼가 드린 개선영웅, 우리의 자랑스러운 핵과학자, 기술자들을 축하하여 환희로운 공연무대를 펼쳐놓았다.

혁명의 만리마를 타고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사회주의승리봉을 향해 질풍처럼 달리는 강국의 위상이 나래치고 백전백승 조선로동당과 함께 모든 영광을 맞이할 인민의 불타는 충정과 철의 신념이 천만심장의 합창으로 메아리친 공연은 관람자들의 대절찬을 받았다.

공연이 끝나자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또다시 터쳐올리는 《만세!》의 우렁찬 환호성이 장내를 진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따뜻이 손을 저어주시며 공연성공을 축하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는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으로 민족사적대경사, 특대사변을 안아온 핵과학자, 기술자들을 위하여 성대한 축하연회를 마련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연회에 참석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목란관연회장에 나오시여 대륙간탄도 로켓장착용 수소탄시험성공에 기여한 성원들과 함께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동적위군명에 위병대를 사열하시었다.

연회참가자들은 비범한 예지와 걸출한 령도, 회생적인 헌신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핵무력건설대업을 빛나

게 계승발전시키시며 반만년민족사에 특기할 대경사, 대사변들을 련이어 안아오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터쳐올리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연회석상에서 뜻깊은 말씀을 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부문별과업을 제일 당당하게 현실적으로 관철한 핵개발자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고 그들에게 당과 국가를 대표하여 다시한번 감사를 드린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공화국의 핵무력건설의 초행길을 열어주시고 빛나는 승리에로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오늘의 승전소식을 아시면 얼마나 기뻐하시였겠는가고 절절히 말씀하시면서 이번에 울린 수소탄의 폭음

확정적이라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당의 믿음직한 핵전투원들이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으로 민족사적대경사, 특대사변을 안아온 투쟁기세를 순간도 늦추지 말고 더욱 분발하여 보다 큰 승리를 이룩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연회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를 총정리로 받들고 국가핵무력완성을 위한 마감단계의 연구개발전투를 빛나게 결속함으로써 세계최강의 핵탄으로 당과 혁명을 억척같이 보위해나갈 참가자들의 드높은 혁명적열정이 차넘치는 속에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대륙간탄도로켓장착용 수소탄시험성공에 기여한 성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본사기자



피의 대가로 이루어낸 위대한 승리

지난 9일 평양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을 안아온 핵과학자, 기술자들을 위한 축하연회가 성대하게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뜻깊은 그 자리에서 이번에 올린 수소탄의 폭음은 간고한 세월 허리띠를 조이며 피의 대가로 이루어낸 조선인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말씀하시었다. 조선이 틀어쥔 자위의 핵, 정의의 핵이 얼마나 값비싼 것인가에 대한 의미깊은 말씀이었다. 공화국이 보유한 강위력한 자위의 핵에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천만고생이 깃들여있다. 조국과 인민의 운명이 판가리되던 준엄한 시련의 시기 또다시 제국주의의 노예가 되느냐, 아니면 자주적인 인민이 되느냐 하는 갈림길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드셨다. 무엇보다도 나라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켜야 했기에 그이께서는 숨죽은 공장들과 식량난을 겪고있는 인민들의 눈물겨운 정상을 보시면서도 그 누가 내 마음 몰라줘도 희망안고 이 길을 가고가리

라는 신념의 노래를 마음속으로 부르시며 사생결단의 각오를 안으시고 선군장정의 길을 걷고걸으셨다. 그 길에서 한공기의 죽으로 끼니를 에우시고 달리는 야전차에서 쪽잡에 드신 이야기와 눈보라강행군, 삼북철강행군이라는 가슴뜨거운 일화들이 태어났다. 그이께서 걸으신 군력강화의 길에서 자위의 핵역제력이 마련되었고 공화국은 준엄높은 핵보유국으로 되었다. 공화국의 핵은 국가핵무력건설의 초행길을 열어주시고 승리로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천만고생과 맞바꾼 귀중한 창조물이며 그이께서 남기신 고귀한 애국유산이다. 조선이 틀어쥔 핵은 위대한 장군님의 핵강국건설념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우시기 위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치신 헌신과 로고의 산물이기도 하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국주의자들과 그 추종세력들의 무분별한 핵위협과 침략책동

에 맞서 자위적인 핵보유를 영구화하고 그에 토대하여 경제강국건설에서 결정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을 제시하시고 그 투쟁을 진두에서 이끄시었다. 로케트개발집단의 총설계가, 총제작자가 되시어 깊은 밤, 이른 새벽에도 위험천만한 시험장소들과 조립현장, 포연자욱한 발사장들을 찾고찾으시며 국방과학자, 기술자들과 고락을 함께 하시고 기발한 과학적 성공의 비결과 무한한 힘과 용기를 안겨주신 그이의 희생적인 헌신에 의하여 《3.18혁명》과 《7.4혁명》, 7.28의 기적적 승리가 창조되었다. 몸소 결사대원이 되시어 전략무기개발의 험로영역을 앞장에서 헤치신 그이의 로고는 공화국의 전략적지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고 세계정치구도를 변화시키는 특대형사변들을 연발적으로, 다발적으로 탄생시켰다. 대륙간탄도로켓장착용 수소탄시험에서 완전성공은 핵무력

건설의 총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천갈래, 만갈래의 시련이 중중첩첩 가로놓인 핵무기병기화의 생눈길을 진두에서 헤치시며 안아오신 또 하나의 위대한 승리이다. 조선의 핵은 천만군민이 피로써 창조한 귀중한 재부이다. 세계사회주의진영이 붕괴되면서 사회주의의 보루로 남아있는 조선에 대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제재와 봉쇄, 침략전쟁책동은 역사에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혹한 것이었다. 린집도 억측도 없는 사회주의국가가 단독으로 수십년 세월 제재와 봉쇄의 난파도를 헤쳐나가자니 경제적난관인들 왜 없었고 피눈물인들 왜 흘리지 않았겠는가. 공화국인민들이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엄혹한 시련의 시기에는 굶주림도 있었고 가슴아픈 희생도 있었다. 세기를 이어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핵전쟁도발책동은 더욱 로골화되었으며 조선은 불가피하게 허리띠를 더 졸라매고서라도 핵보유의 길로 나가게 되었다.

이처럼 조선의 핵은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유산이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헌신과 로고의 산물이며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이 간고한 세월 허리띠를 조이면서 피의 대가로 만들어낸 창조물인것으로 하여 더욱 값비싸고 귀중한 것이다. 이렇게 고귀한 유산, 귀중한

창조물을 조선이 포기할수 있는가. 대답은 명백하다. 지구상의 다른 핵보유국들이 상상도 할수 없는 것처럼 간고하고 엄혹한 시련속에서 피의 대가를 치르며 자체의 핵과 기술로 마련한 준엄이고 험명이며 행복이기에문에 절대로 내놓을수 없다. 역사적교훈은 자기를 지킬 힘이 없으면 인류의 암덩어리, 악의 제국인 미국의 침략과 략탈의 희생물이 되고만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준엄높은 핵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의 전철에 당당히 올라선 오늘의 승리를 통하여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이 신념으로 체득한 철리가 있다. 그것은 바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는 과학이고 승리이라는것이며 모진 시련과 난관이 겹쌓여도 그이의 령도를 따르는 길이 곧 승리의 길이라는것이다. 공화국이 국가핵무력완성의 완결단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단행한 대륙간탄도로켓장착용 수소탄시험을 놓고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또다시 유엔 《제재결의》라는것을 조작해냈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해놓으신 튼튼한 자립경제체도가 있으며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과 혼연일체의 불가항력적힘이 있어 조선의 최후승리는 확정적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밑에 공화국은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안아올것이다. 본사기자 고성호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으로 민족사적대경사, 특대사변을 안아온 핵과학자, 기술자들을 위한 축하공연

누구도 우리 앞길 막지 못한다

미국의 가증되는 침략위협에 대처하여 공화국은 대륙간탄도로켓을 개발한데 이어 거기에 장착할 수소탄시험에서까지 성공하여 적대세력으로 하여금 이제 더는 공화국을 핵으로 위협할수 없음을 뚜렷히 알게 하여주었다. 이에 당황망조한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은 유엔을 내세워 또다시 극악한 《제재결의》라는것을 채택하였다. 이 결의에는 어떻게 하나 급속히 강화되는 공화국의 핵무력을 억제하고 경제적으로 질식시켜보려는 음흉한 속심이 깔려있다. 허나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길을 따라 곧바로 전진하는 공화국의 앞길을 제재따위로 막을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망상이 아닐수 없다. 공화국에 있어서 미국의 제재는 새로운것이 아니다. 자주의 보루, 세상에 돌도 없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조선을 눈에 든 가지처럼 여기면서 어떻게 하나 압살해보려고 미국은 이루 헤아릴수 없는 제재와 봉쇄의 몽둥이를 휘둘러왔다. 그러나 거기에 굴복하고 주저앉은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방의 핵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우뚝 솟아오른 공화국이다. 제재속에서 공화국은 더욱 굳세지고 강해졌다. 인공지구위성이 날아오르고 자위의 핵퇴성이 터졌으며 주체란이 련속 만리대공에 치달아오르고 수소

탄의 장쾌한 폭음이 울리었다. 승리의 만세소리, 기쁨의 웃음소리가 날로 더욱 커만 갔다. 미국의 그 어떤 제재도 막을 못주게 만드는 신비한 조선의 힘의 하나가 자강력이다. 지난해 정초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 성공에 질겁한 미국이 《초강도제재》를 조작하며 반공화국압살책동에 더욱 광분하던 때였다. 유엔력사에도 없는 극악무도한 제재가 채택된것으로 하여 많은 나라 사람들이 조선에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있었다. 그러나 조선에서 울려온것은 려명거리작공의 힘찬 동음소리였다. 려명거리건설은 단순한 거리형성이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과의 총포성없는 대결전이었다. 제재가 이기느냐 자랑력이 이기느냐, 조선이 이기느냐 미국이 이기느냐의 판가리싸움이었다. 그로부터 1년도 안되는 너무도 짧은 기간에 세계가 지켜본 그 지구에는 웅근한게 도시를 방불케 하는 웅장화려한 려명거리가 일떠섰고 인민들의 기쁨진기 새집들이경사가 펼쳐졌다. 이것은 령도자의 구상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우려는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의 억척불변의 신념과 원수들의 가증되는 제재압살책동을 자력자강의 무쇠마치로 쳐갈기고 제 힘으로 이 땅위에 기어이 강성변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려는 의지의 발현이다.

지난 3월준순 완공단계에 있는 려명거리건설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일떠서는 려명거리의 미제와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강대한 나라를 기어이 건설하려는 우리 당의 구상이 반영된 거리, 당과 대중의 혼연일체의 위력이 깃들여있는 거리, 사회주의문명이 응축된 거리, 주체조선의 무진막강한 경제적잠재력을 과시하는 거리, 우리가 일단 마음먹는것은 다 할수 있고 우리 식대로 남들이 보란듯이 잘살수 있다는것을 온 세상에 떨치는 로동당시대의 선경으로 높이 솟아 빛날것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었다. 공화국이 오늘 세계에 몇안되는 수소탄보유국, 대륙간탄도로켓보유국으로 위력을 떨치고있는것도 남의 힘이나 도움이나 아니라 100% 자기의 지혜와 힘으로 이루어낸 귀중한 결실이다. 탁월한 령도가 있고 군민의 일심단결과 튼튼한 자립경제의 토대가 있으며 과학자대군이 있고 자력자강의 위대한 전통이 있어 그 어떤 려사의 광풍도 두려움없이 맞받아 헤쳐나가며 최후승리의 령마루에 질풍같이 내달리는 공화국이다. 이런 조선의 힘, 역센 기상을 누구도 꺾을수 없고 당할수도 없으며 진군의 힘찬 발걸음을 멈추어세울수도 없다. 오신명

《제재결의》를 쳐갈린 승리자들의 노래

9월 12일, 미국은 저들의 거수기로 전략 유엔을 내세워 또다시 비렬한 대조선 《제재결의》라는 것을 조작하였다. 그날 저녁의 TV화면으로는 제16차 전 국근로자들의 노래 경연(대학생부류 4 중창, 중창종목 준결승)이 펼쳐졌다. 공화국에서 노래경연은 해마다 진행되고있다. 하지만 이날의 경연무대에서 울린 노래들은 레사롭게 들려오지 않았다.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이 가장 포악무도한 《제재결의》라는것을 조작해낸 그날에 울린 노래이 기념물일것이다. 비록 노래는 대학생들이 나서서 부른 것이지만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의 마음을 담아 울린것이었다. 김철주사범대학의 학생들은 노래 《사회주의는 우리거야》를, 남포의학대학의 학생들은 노래 《사회주의는 우리 생활 우리 생명》을 각각 여성중창으로 힘차게 불렀다. 적대세력들이 악의에 차 비방을 하든, 《제재결의》를 날조하든 우리는 우리의 생활이고 생명인 사회주의와 끝까지 운명을 같이하려는 군민의 굳센 신념과 의지가 노래마다에 울려넘치고있었다. 평양건축종합대학의 대학생들도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짓부시며 인민이 사는 이 땅위에 황홀한 창조물들을 더 많이 일떠세울 애국의 마음을 담아 《사랑하노라》의 노래를 깊은 서정속에 잘 불렀다. 라진해운대학의 남학생들이 부른 《그때처럼 우리가 살고있는가》의 노래를 들으며 시청자들은 보충을 쥐고 핵무기를 휘

두르는 미국놈들을 통쾌하게 답새겨대고 빈터우에서 전후복구건설과 천리마대고조운동의 봉화를 지펴올렸던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 부모들의 뜻과 넋을 되새겨보고 오늘의 반미최후대결전에서 영웅조선의 본때를 남김없이 과시하리라는 열의를 드높였을것이다. 흥성2중창 《한마음 따르렵니다》, 여성중창 《친근한 우리 원수님》, 여성중창 《인민의 환희》는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과 그이의 애국의 령도를 끝까지 따르려는 천만군민의 마음을 그대로 담은 노래였다. 승자는 언제나 여유작작한 법이다. 밖에서는 어떻게 하나 공화국을 질식시키려는 적대세력들이 단말마적으로 울부짖어대고있었지만 따사로운 햇빛이 가정과 일터마다에 비쳐드는 공화국에서는 어디를 가나 노래가 울리고있다. 그것은 승리의 노래, 랑만의 노래이고 미래에 대한 환희의 정서적인 터침이다. 어제 그렇지 않겠는가. 우리 공화국은 이미 가질것은 다 가진 동방의 핵강국, 대륙간탄도로켓보유국이고 최후승리의 래일을 지적에서 바라보며 강국의 새 려사를 써나가고있다. 오래전부터 다져온 자립경제의 토대로 든든하고 자력의 힘으로 만남을 이겨내며 기어이 승리와 기적을 창조하는 군민의 정신력, 일심단결의 힘도 무궁무진하다. 그러니 무엇이 두렵겠는가. 제재를 하겠으면 실컷 하라. 우리는 조금도 두렵지 않으며 우리의 힘으로 이 땅위에 인민이 반복을 누리는 천하제일강국을 보란듯이 일떠세울것이다. 이런 신념과 배짱, 굳센 의지를 싣고 불법무도한 《제재결의》를 산산이 흩날려버리며 선군조선의 아름다운 밤하늘가에 끝없이 울려간 랑만의 노래, 승리의 노래들이다. 11일 미국신문 《워싱턴 포스트》는 국제적인 제재에 신

경을 쓰지 않아도 될만큼 북조선정권에 대한 인민들의 지지가 튼튼하기때문에 《대북제재》는 효과를 볼수 없다고 보도하였다. 12일 남조선의 언론들도 《유엔의 《대북제재》 노림수는 정권에 대한 인민들의 불만이 북정권을 흔들며 핵무기개발을 포기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오래된 북전문가들도 놀라는 것이 있다. 정권에 대한 인민들의 사랑과 열정이다. 인민들은 김정은정권을 떠받들고있다. 경제제재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있지만 북정권에 대한 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지지로 이를 극복할수 있다. 북은 6.25전쟁이후 폐허에서 일어서으며 90년대 식량위기에 서도 무너지지 않았다. 결국 지금까지의 《대북제재》는 실패했다고밖에 볼수 없다.》라고 하면서 공화국이 새로운 제재에도 끄떡하지 않을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사실 지금 곤경에 처하고 심리적압박을 받고있는것은 제재를 떠드는 적대세력들이다. 공화국의 정당한 핵무력강화에 무분별한 제재와 침략전쟁소동으로 대답하는 적대세력들의 책동으로 인해 국제금융시장이 일제히 요동치고 워싱턴과 도쿄, 서울 등 도처에서 경제위기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있다. 국제적인 금가격은 2016년 9월이후 최고로 뛰어들었다. 남조선에서는 9월 4일 하루 동안에만도 수억US\$의 투자금과 외국자본이 빠져나갔다고 한다. 물에 빠진자 지푸라기도 잡는다고 아직도 한가닥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허무맹랑한 제재의 끈을 놓지 못하는 적대세력들과 국가핵무력완성의 축포를 터칠 환희의 그날을 바야흐로 눈앞에 두고있는 공화국, 려사의 기나긴 대결에서 이제 최후승리의 축포성은 누가 더 화려인가에 끝없이 울려간 랑만의 노래, 승리의 노래들이다. 본사기자 김준경

미국과 추종세력들은 우리 천만군민의 서리발치는 멸적의 기상을 똑바로 보아야 한다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성명

지난 8월 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만일 미국이 우리를 압살해 보려는 무모한 시도를 걸어치우지 않고 경거망동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최후수단도 서슴지 않고 불사할것이라는 엄정한 성명을 발표하였다.

9월 10일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도 미국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보다 더 혹독한 불법무법의 대조선 《제재결의》를 끝끝내 조작해내는 경우 우리는 미국으로 하여금 사상 류례없는 곤혹을 치르게 만들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이것은 빈말을 모르는 공화국의 변함없는 공식립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9월 12일 유엔안전보장리사회회의의 거수기들을 동원하여 새로운 대조선 《제재결의》 제2375호를 조작해내는 횡포하고도 비렬한 국가테러범죄를 또다시 저질렀다.

이 소식에 접한 공화국의 천만군민은 남강도 미제에 대한 치솟는 분노와 그 추종세력들에 대한 증오

로 심장을 꿰이며 전국가적, 전인민적반미대결전에 산악같이 떨쳐나섰다.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보복일념으로 불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목소리를 그대로 이 성명에 담는다.

지금 우리 천만군민은 《제재결의》 조작의 주범인 미국놈들을 미친개처럼 몽둥이로 때려잡아야 한다고 한결같이 강하게 주장하고있다.

미국놈들은 세기와 세기를 이어 우리 인민을 살륙하며 못살게 굴고 있는 철천지원썩이다, 그대로 살려둘수 없는 승냥이무리이다, 우리의 자주권,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고있는 남강도무리들을 용서해서는 안된다, 참을성에도 한계가 있다, 미제침략자들을 박멸할 때가 되었다, 미국땅을 초토화하자, 암흑세계로 만들자, 지금까지 차근차근 준비한 보복수단을 총동원하여 우리의 한을 풀자고 한사랄같이 요구해나서고있다.

미국의 제재소동에 편승하여 새망

을 뻔 일본의 섬나라족속들에 대한 지탄의 목소리 또한 거세게 터져나오고있다.

천년속적 왜놈들의 꼴을 볼수록 눈에 불이 인다, 우리 인민에게 천추에 씻지 못할 죄를 짓고도 사죄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미국의 《제재》장단에 춤추며 가증스럽게 놀아대는 간악한 쪽발이들을 가만두어서는 안된다, 일본렬도상공을 날아넘는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켓을 보고도 아직 정신을 덜 차리고 못되게 나오는 일본놈들에게 단단히 본때를 보여주어야 한다, 보잘것없는 일본렬도의 4개 섬을 주체의 핵탄으로 바다속에 처넣어야 한다, 일본은 더이상 우리 가까이 돌 존재가 아니다, 이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격양된 목소리이다.

남조선괴뢰들에 대한 분노는 더욱더 서리발친다.

동족의 껌테기를 쓴 미국의 개가 바로 괴뢰적들이다, 더 강한 《제재》로 동족을 압박해야 한다며 너무나도 추하게 놀아대고있다, 더이

상 설쳐대지 못하게 괴뢰들부터 되게 다스리자, 불마당질로 친미역적무리들을 쓸어버리자, 그러면 우리 민족모두가 통일된 한강도에서 세계가 보란듯이 더욱 강성변영할수 있다고 웨치고있다.

인류의 평화와 안전은 췌버리고 미국의 도용기기로 전락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대한 우리 천만군민의 격렬한 성토 또한 불소나기처럼 쏟아져나오고있다.

미국이 하라는대로 놀아대는 기구의 어중이떠중이들에 대한 증오로 치가 떨린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라는것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기구가 아니라 도리어 무참히 파괴하는 악마의 도구이다, 정의도 도도의 량심도 다 췌버리고 대조선 《제재》에 손을 든 덩지값 못하는 나라들과 딸라의 유혹에 굴복한 나라들의 작태 민망스럽게 그치지않다, 이런 나라들이 모여있는 곳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라면 그런 기구가 도대체 누구에게 필요한가, 당장 해체해버려야

한다는것이 우리 천만군민의 강력한 요구이다.

미국과 추종세력들을 향한 이 격노한 목소리들은 그대로 조선인민의 성명이다.

미국과 적대세력들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개가 짖는다고 하여 산이 무너지는 법은 없으며 썩은 그물보다도 못한 《제재》가 무서워 주춤하거나 할바를 못할 우리 군대와 인민이 아니다.

극악한 《제재결의》 조작은 우리로 하여금 민을것은 오직 자기 손에 틀어쥔 자위적행무력뿐이며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병진의 한길로만 나아가려는 불변의지를 더욱 억척같이 버리게 하고있다.

미국과 추종세력들은 지구도 깨버릴 절대적힘을 틀어쥐고 멸적의 활화산을 터뜨리는 우리 천만군민의 무서운 기상을 똑바로 보고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한다.

주제 106 (2017) 년 9월 13일 평양

대학입학원격시험체제 확립

지식경제시대, 인재중시시대인 오늘날 교육사업에서 획기적전환을 일으켜 재능있는 인재들을 더 많이, 더 훌륭히 키워내는것은 나라와 민족의 전도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특히 경제력을 비롯한 국력강화의 중요한 고리로 되고있는 대학교육을 강화하여 우수한 대학졸업생들을 키워내자면 인재후비들을 옮겨 선발하여 대학에 입학시키는것이 선차적인 문제로 나선다.

최근 공화국의 교육부문 일군들은 대학입학시험방법을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우리 식으로 혁신하기 위한 줄기찬 투쟁을 힘있게 벌려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의 대학입학원격시험과정이 그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주제 106 (2017) ~ 주제 107 (2018) 학년도에는 원격시험을 실시하는 대학들이 지난해보다 2배에 달함으로써 그 범위가 더욱 확대되었다.

도의 도서관들에서는 다른 지방에 있는 중앙대학들에 추천된 수험생들이, 각 대학들에서는 자기 지방의 수험생들이 원격시험에 응시하였다.

대학입학원격시험에는 시험봉사프로그램, 채점프로그램을 비롯한 10여개의 각종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들이 리용되었다.

대학입학원격시험에서는 고급중학교와 제1중학교 수학수재반, 금성제1중학교, 금성제2중학교의 컴퓨터수재반을 비롯하여 각이한 교종별 교육강령에 따라 구축된 수십개의 학과목별 문제자료기지에서 수천개의 문제를 자동출제하여 수험생들에게 제시하고 그들의 시험결과를 즉시 채점하여 성적을 현시하여주었을뿐 아니라 교육위원회와 해당 대학들에 즉시에 전송하였다.

대학입학제도가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개선됨으로써 수험생들의 입학과 학부배치를 본인의 성적순위와 지방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할수 있게 되었다.

또한 다른 지방에 있는 중앙대학들에 추천된 수험생들이 해당 대학들에 가지 않고도 자기 지역에서 사소한 불편이 없이 입학시험에 응시할수 있게 되었다.

대학입학원격시험을 통하여 중등일반교육부에서 학생들의 학습열의와 교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이 더욱 높아져 교육의 질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는데서 큰 걸음을 내질게 되었다.

그리하여 종전에 여러 대학들에서 실시하던 컴퓨터에 의한 입학시험을 전국적인 범위로 넓힌 우리 식의 대학입학원격시험체제를 확립함으로써 대학입학선발에서 공정성과 객관성, 과학성을 담보할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갖추게 되었다. 하기에 공화국의 교육자들과 학부모들을 비롯한 각계층 근로자들은 이번 대학입학원격시험을 두고 교육부에서의 하나의 변혁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있다.

리성심

교육제도에 비낀 두 현실

교육제도는 사회의 문명정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의 하나라고 할수 있다.

공화국에서는 해방후 짧은 기간에 소학교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학교들을 널리 설치하고 정연한 민주주의교육체제를 세운 기초우에서 나라의 경제토대가 튼튼하여지는데 따라 전반적무교육제를 단계별로 실시하였다.

1956년 전반적초등의무교육제가 실시된데 이어 2년후에는 전반적중등의무교육제가 실시되었다.

1966년 11월에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3기 제6차회의에서는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하여》의 법령을 채택하고 9년제기술의무교육의 실시를 온 세상에 선포하였다.

1975년 9월 1일부터 세계력사상 처음으로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이 완전히 실시되었다.

2012년 9월에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회의에서는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한 법령이 발표되었다.

공화국의 교육제도는 교육사업에 필요한 모든것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장하는 철저한 무료교육이라는데 그 특성이 있다.

공화국의 무료교육제는 또한 그 대상과 범위가 매우 넓고 포괄적이다.

새 세대들을 위한 학교교육뿐 아니라 일하면서 배우는 온갖 형태의 교육도 모두 국가의 부담으로 진행되고있다. 평양의 인민대학습당을 비롯하여 온 나라 각지에 수많은 도서관과 책방들이 꾸려져있고 과학기술자료통보 및 봉사체제가 전국적범위에 확립되어있

는데 그것 역시 모두 무상으로 운영되고있다.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인재강국화구상에 따라 공화국의 교육제도가 날이 발전하는 속에 전국의 여러 대학들이 종합대학으로 되고 수많은 근로자들이 일하면서 배우는 원격교육대학에서 지식의 높은 탑을 쌓아가고있다.

김일성종합대학,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건축종합대학, 장철구평양상업종합대학, 함흥수평양종합대학, 평성석탄공업대학을 비롯한 전국의 수많은 대학들에 원격교육체제가 정연하게 세워져 올해에만도 수천명의 근로자들이 현지에서 일하면서 배우는 대학생이 되었으며 그 수는 날을 따라 늘어나고있다. 로동자이건 농민이건 일군이건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그 어디서나 원격교육체제를 통하여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서 배울수 있는것이 공화국의 현실이다.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교육제도가 있어 평범한 근로자들이 컴퓨터앞에 앉아 강의를 받으며 무료로 대학공부를 할수 있는 문명의 세계가 공화국에 펼쳐져있다.

하다면 《문명》을 곧잘 위우는 자본주의사회의 교육제도와 실태는 어떠한가.

교육이 철두철미 돈벌이수단으로 되어버린 미국에서 새 세대들의 배움의 권리와 그들의 장래는 부모들의 돈주머니에 의해 결정된다. 오죽하면 아이들이 어머니의 배속에 있을 때부터 부모들이 학비걱정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겠는가.

자본주의나라에서는 교육이 사람을 사회의 주인으로가 아니라 돈의 노예로 전락시키고있다.

인간이 보장받아야 할 교육의 권리와 의무가 돈에 의하여 규제되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인민적교육제도에 대해 생각조차 할수 없다는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반인민적교육제도는 비인간적, 반문명적교육환경을 산생

시키기마련이다.

교정에서 걸핏하면 총을 휘둘러댈으로써 총소리와 비명이 터지고 류혈참극이 빚어지는 죽음의 마당으로 되고있는것이 바로 미국사회이다. 학생들의 손에 총기류가 쥐여지고 교복대신 방탄복을 입어야 하는 이런 교정 아닌 교정에서 자라난 청소년들이 과연 사회발전에 어떤 기여를 할수 있겠는가 하는것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수 있다.

미교육장관까지도 자기 나라에서 1 100만명의 성인들이 글을 읽을줄도 쓸줄도 모르며 3 000만명은 문건이나 은행행표에 겨우 수표나 할수 있는 정도라고 아우성을 치는 형편이니 여기에 무슨 미래가 있다고 할수 있겠는가.

이러한 실태에 대해 한 외신은 《미국에서는 고양이, 개(교양원)들에 대한 요구가 오�히려 후대교육을 책임진 교원들에 대한 요구보다 훨씬 더 엄하다. 이것은 《문명국가》의 수칙이다.》라고 야유한적이 있다.

남조선의 교육현장의 실태도 다를바 없다.

남조선의 한 출판물은 최근 5년간 학교안에서 폭력행위로 학생들이 죽거나 다친 사건이 수천건에 달하고있는 사실을 폭로하면서 문체는 해당 사건들이 학교안에서 벌어지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폭력사건에 대해 전혀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데 있으며 이런 때문범죄들의 밑바닥에는 심각한 정치경제적문제가 깔려있다고, 이를 해결하려면 온갖 사회악부러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교육제도, 교육환경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평범한 근로자들이 일하면서 무료로 배운다는것은 상상도 할수 없는 것이다.

극소수 특권계층에게만 치부와 안락을 주는 변화가를 두고 아무리 《문명》을 떠들어대도 사회에 드러온 암흑의 그림자를 가리울수는 없다.

교육제도 하나만 놓고도 문명으로 더욱 밝아지는 사회주의제도의 현실과 암흑속에서 허덕이는 자본주의사회의 진면모를 똑똑히 알수 있다.

조영범



첨단들과의 포부를 안고 열심히 배우는 대학생들

우리 조국은 천하제일의 강국입니다

조선의 주체란리성, 핵외성이 행성을 뒤흔들고있다.

각종 사거리를 가진 화성로켓들이 련속 우주의 만리대공으로 치솟아 오르더니 얼마전에는 무한대한 국력의 과시인양 대륙간탄도로켓장착용 수소탄의 초강력폭발력이 또 다시 지구를 들뜨다놓았다.

존엄높고 강대한 조선의 기상이며 온 세상에 내뿜치는 조선의 막강한 힘의 파시이다.

* * *

조선을 진원지로 수소탄의 거대한 지진파가 온 지구를 휘감았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전략적구상과 탁월한 령도밑에 진행된 대륙간탄도로켓장착용 수소탄시험의 성공을 통해 초강력 핵탄을 실전에서 사용할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음을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하였다.

온 지구촌이 벽적 뚫고있다.

각국의 출판보도수단들이 경쟁적으로 조선의 수소탄시험성공소식을 긴급보도로 전하고 세계의 권위있는 전문기관들이 저마끔 나서 그 위력을 분석하느라 분주히 돌아가고있다.

내가 사는 이곳에서도 공화국의 수소탄시험성공은 큰 화제거리로 되고있다.

언론들은 조국의 이번 수소탄시험을 놓고 로씨야, 중국, 미국, 일본 등이 최소 50kt에서 최대 150여kt의 폭발력이라고 인정하였다고 보도하고있다.

600km떨어진 중국 할빈에서도 진동이 느껴질만큼 그 위력은 상상밖이었다.

전문가들은 핵시험에서 폭발력이 40~50kt이면 중폭핵분열탄으로, 50kt이상이면 수소탄으로 보는 국제관례상으로 볼때 이것은 완벽한 수준의 수소탄시험이라고 하면서 조선은 대륙간탄도로켓장착용 수소탄시험성공으로 《5대핵보유국》 수준의 핵능력을 보여주었다고 평하였다.

조선이 터친 수소탄의 위력 앞에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극도의 불안에 떨고있다.

그렇만도 하다.

일반적으로 수소탄은 핵융합 반응을 리용한 열핵무기로서 그 위력은 원자탄에 비해 무려 수십~수백배에 달한다고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수소탄을 일명 《열대병기》라고 부른다.

지구상에 200여개의 나라가 있지만 수소탄을 보유한 나라는 다섯손가락안에 꼽힌다. 바로 이러한 열대병기를 동방의 자그마한 나라, 조선이 보유하고있다. 그것도 핵렬강들의

적대적인 압박과 제재책동 속에서 자강력으로 만들어내었다.

조선이 터친 수소탄의 위력은 물리적으로도 매우 강력했다. 하지만 조선의 수소탄보유의 의미를 산술적으로 다 계산할수는 없다.

언제인가 유럽의 한 정치가는 오늘의 세계는 핵무기를 가진 귀족과 보병노릇을 하는 농노로 갈라진 세계라고 말한바 있다.

귀족과 농노, 이것은 인류사에서 암흑시대로 불리웠던 중세기 봉건의 대명사이다.

하지만 이러한 《신분적차별》은 수백년세월이 흐른 오늘까지도 나라들사이에 지속되고있다.

그 대표적인것이 로골적인 차별과 불평등을 내포한 핵무기전과방위조약(NPT)의 지붕밑에서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는 핵대국들의 강권과 전횡이다.

《유일초대국》이라고 자처하는 미국이 여기서 재판관행세를 하고있다.

누구도 미국에 권한을 준적이 없지만 스스로 핵무기전과방위조약을 동등으로 쳐들고 자기의 말을 고분고분 듣지 않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제재와 압박을 가하고있다.

최강의 핵강국, 조선의 출현으로 미국의 핵독주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다.

조선반도와 지역의 안정을 지키는 정의의 보검, 세계평화를 굳건히 지켜주는 강대한 수호의 힘을 지녔다는데 조국의 수소탄보유가 가지는 거대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조선이 또 한번 큰걸음을 내짚었다. 조국이 위대한 강국의 시대에 당당히 들어섰다.

돌이켜보면 민족사에는 동방의 천년강국으로 위용떨친 고구려 그리고 민족의 지혜와 슬기를 떨친 고려의 역사도 있다.

하나 오늘같이 세인이 부러워하는 수소탄보유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조선이라는 그 이름 세계만방에 떨쳐진적 이 과연 언제 있었던가.

세상사람들이 놀라워하고 경탄해마지않는 대륙간탄도로켓을 보유한 세계 6대강국, 전략잠수함 탄도탄을 보유한 세계 5대강국, 이동식발사대차를 리용한 대륙간탄도로켓발사 기술을 보유한 세계 3대강국, 세계의 몇안되는 수소탄보유국이 오늘의 조선이다.

다계단사변도 놀랍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비약적인 발전속

도에 세계가 더 놀라워한다.

올해에만도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탄 《북극성-2》형,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켓 《화성-10》형, 전략잠수함 탄도탄,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켓 《화성-12》형,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 등의 시험발사와 수소탄시험에서 또다시 성공함으로써 조국의 강대함을 더해주는 위력한 핵공격수단들을 련속 탄생시켰다.

외계의 시각으로는 도저히 리해할수 없는 조선의 비약하는 현실이고 막강한 힘이다.

지도를 펼쳐보면 조선은 아시아의 동쪽에 위치한 크지 않은 나라이다. 인구수와 령토의 크기로 보나 경제력으로 보나 미국과 대비가 되지 않는다. 더구나 조국땅은 조선반도를 세계제패를 위한 《대륙에로의 건넌다리》, 아시아라는 《고기덩어리》를 잘라내는 《단검》으로 간주한 미국의 전쟁책동으로 6.25의 참혹한 전란을 겪었고 70년이 넘도록 미국의 악랄한 군사적압살책동과 경제봉쇄를 항시적으로 받고있다.

그러나 조선은 언제 한번 좌절감에 빠진적이 없고 구걸의 손을 내민적도 없다.

오히려 미국과의 대결전속에서 기세충천하여 강국의 위용을 떨치고있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미제와 싸워이긴 영웅조선이 되었고 100년이 걸려도 일어서지 못하던 조국땅을 불과 10여년 사이에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면시킨 기적의 나라가 되었다. 세계가 조선의 《붕괴》는 시간문제라고 요란스레 떠들던 1990년대의 지구적인 동란기에도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고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켜 인공위성 제작 및 발사국, 핵보유국으로 도약했다.

조국은 세기와 년대를 이어 승리하고 전진하고있다.

미국의 질식과 압살의 광풍속에서도 인민을 위한 기념비적건축물들이 련이어 솟아나고 무료교육, 무상치료를 비롯한 인민적시책들이 단 한시도 중단됨이 없이 실시되고있다. 도저히 가늠할수 없는 신비의 힘을 련속 발산하며 명실상부한 핵강국으로 도약하였다.

결코 하늘이 준 기회도 세월이 가져다준 우연도 아니다.

일심단결과 자강력, 이것이 조선이 발산하는 기적같은 힘의 원천이며 역사의 모진 풍파

속에서도 조선이 오직 승리만을 거둬들여 온 비결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조국방문때마다 더욱 굳어지는 나의 견해이고 확신이다.

일심단결은 조선의 위력이다. 령도자와 군민이 하나의 사상으로 일심일체화된 나라는 오직 조선밖에 없다.

하기에 세계는 이를 두고 조선만이 가지고있는 핵무기보다 더 위력한 《특허무기》라고 이미 정의를 내렸다. 바로 그러한 군민의 심장마다에 세상에 없는 자력자강의 정신이 맥동치고있다.

미국의 가증되는 제재와 압살책동속에서도 경제건설,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을 국가의 전략적로선으로 제시하고 병진의 기치따라 자위적핵억제력을 부단히 강화해온 조선의 결심과 의지가 바로 여기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세기전에는 강토와 국호는 물론 성과 이름까지 일제침략자들에게 빼앗겼던 조선민족이었다.

반만년력사국을 하루아침에 잃고 약소국의 설움을 감수하며 《아! 조선아, 왜 너는 남과 같이 크지를 못하였느냐, 군세지를 못하였느냐》며 가슴을 치며 한탄하던 우리 조선민족이었다.

그러한 민족수난의 치욕을 영원히 씻어버리며 나날이 조국의 국력이 높아만 가니 우리 해외동포들의 어깨가 저절로 으쓱해지고 어디가나 《나는 조선사람이다.》라고 당당히 말하고있다.

사변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 놀라운 21세기의 조선의 신화, 민족사적사변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안아오시었다.

무비의 담력과 배짱, 탁월한 령도로 《유일초대국》 미국을 련속 다물리시며 그이께서는 조선을 수소탄보유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높이 떠받들어 올리시었다.

비록 몸은 해외에 있어도 언제나 조국을 안고사는 우리들이다.

하기에 신문과 TV화면을 통하여 수만리 화선천리길에서 헌신의 낮과 밤을 보내시며 나라의 자주권과 생존권, 지역의 안전을 굳건히 수호해나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헌신과 로고를 목격하면서 우리 해외동포들은 천출명장을 높이 모신 조선민족의 긍지로 가슴들 먹이었다.

천 번 만화의 지략으로

원수님께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발악적인 공세를 초강경대응으로 산산이 짓부셔 버리시며 공화국을 천하무적의 강국으로 빛내주고계신다.

그분의 담력과 배짱은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것이다.

2017년 7월 4일 미국이 《독립절》을 즐기고있던 그때 조선반도의 북부에서 용암같은 불길을 내뿜으며 최대정점고도 2 802km, 거리 933km의 비행운을 그리며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이 조선 동해 공해상의 설정된 목표수역을 정확히 타격하였다. 조선사람이라면 누구나 잊지 못하는 107년전 《한일합병》이라는 치욕스러운 조약이 공포된 피의 8월 29일에 일본섭나라족속들을 기절초풍케 하며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켓 《화성-12》형이 일본의 흑가이도 상공을 통과하여 태평양상에 떨어졌다.

절묘한 시각에 《성동격서》로 발사된 조선의 화성로켓들에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넋이 나가 《제재》를 더욱 요란스레 불어대고있을 때 수소탄폭음이 미국의 뒤통수를 또 다시 후려갈았다.

참으로 가슴후련한 력사의 쾌거가 아닐수 없다.

쌓이고쌓인 민족의 한을 세계제일의 배짱가, 담력가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풀어주시었다. 조선인민이 바쳐온 무수한 피와 땀의 대가를 핵무력완성의 완결단계에 다달은 위대한 승리로 빛내여주시었다.

이것은 년대와 세기를 이어 계속되어온 반미대결전에서 주체조선이 이룩한 또 하나의 위대한 승리이며 민족사에 특기할 대경사, 대사변이다.

오늘 세계정치무대에서 공화국의 전략적지위는 최강의 높이에 올라섰으며 조미대결구도는 완전히 바뀌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공화국을 위협공갈하던 시대는 영영 끝장났다.

미국은 조선을 독바로 알아야 한다.

조선은 이전 유고슬라비아나 이라크, 리비아가 아닌 나라의 자주권을 추호도 양보하지 않으며 이미 갖출것은 다 갖춘 존엄높은 핵강국이라는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작년 3월 어느 한 나라의 인터넷홈페이지에는 《선임자들의 교훈》이라는 글이 올랐다.

《첫 함복사를 낸 아이젠하워》, 《첫 사죄문을 낸 존슨》, 《첫 담보서한을 보낸

클린턴》, 《조선이 핵보유국으로 되게 한 부위 2세》 등의 소재목으로 이루어진 글은 미국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새겨들어야 할 선임자들의 교훈이 있다고 하면서 미국의 대통령후보들은 대조선적대시정책이 필연코 파산을 면할수 없다는 선임자들의 교훈을 깊이 명심해야 할것이라고 하였다.

미국언론 《네이션》도 《미국이 지난 70여년이 넘는 세월 동안 북의 장벽에 머리를 들이박았지만 북은 변하지 않았고 미국의 머리만 깨지도록 아팠다.》며 패배를 자인했다.

명실공히 동방의 핵강국 조선이 오늘의 국제정세를 주도하고있다.

얼마전 남조선인터넷에 실린 글은 참으로 의미깊다.

《김정은위원장은 자주국방을 이룩한 위대한 지도자이다. 트럼프, 아베 모두 꼼짝도 못하게 하고있는것을 보면 정말 위대하다. 세계가 김정은위원장이 원하는대로 흘러가고있다.》

희세의 천출명장이신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어 조미대결전에서 미국은 련전련패의 쓴맛을 보고있으며 조선을 축으로 하여 세계가 움직이는 새로운 정치지각변동이 일어나고있다.

나는 평양을 자주 방문하면서 최후승리의 확신에 넘쳐있는 조국인민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령도자가 위대하여야 나라의 국력과 존엄이 최강의 높이에서 빛난다는 력사의 철리를 다시금 깊이 체감하곤 한다.

미국을 눈아래로 굽어보시며 언제나 초강경대응으로 승리만을 떨치시는 절세의 애국자, 만고의 영웅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공화국의 최후승리는 확정적이다.

...

창공에는 우리 국기 무궁토록 나뭇기고

이 땅에선 모든 꿈 이루어 지리

그대를 영원히 사랑하리라

빛나라 이 조선 인민공화국

만방에 높이 올려가는 《조국찬가》의 구절처럼 우리 조국은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며 강국에서 살려온 민족의 오랜 념원을 현실로 꽃피워가고있다.

우리 조국은 김정은시대의 천하제일강국으로 세계만방에 더욱 찬연히 빛을 뿌릴것이다.

재중동포 차성구



소나무의 역센 기상으로

조선의 국수는 소나무이다.

조선의 산과 들 그 어디서나 자라고 군민의 마음속에 언제나 살아 푸른 빛을 뿌리며 설레이는 소나무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도 소나무를 남달리 사랑하신다.

올해 정초에 새로 건설된 평양가방공장의 상표도 안들을 보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소나무가 그려진 상표도안을 온 나라 학생들이 메고다니는 이 공장의 특색있는 가방의 상표도안으로 선정해주신 이야기는 잘 알려진 사실이다.

소나무는 사시창철 푸르른 바늘잎나무이다. 마가

을바람에 나무잎들이 떨어저도 소나무의 잎은 지지 않으며 강산이 눈속에 묻혀도 푸른 자태를 바꾸지 않는다. 겨울의 칼바람에도 끄떡하지 않는 소나무, 눈속에 파묻혀도 푸른 빛을 잃지 않는 소나무.

소나무의 이 기상은 그대 로 조선의 역센 기상으로 되고있다.

공화국이 창건되어 69년이 흐르고 그동안 세상의 많은것이 변하였지만 소나무처럼 변하지 않고 자주와 정의의 한길을 따라 기운차게 나아가는 조선이다.

지금 적대세력들은 공화국이 역척같이 틀어쥔 자위의 핵과 그 운반수단들을 빼앗으려고 갖은 제재

와 위협소동에 매달리고있다. 그러나 공화국은 비렬한 제재와 압박소동에 주춤하거나 굽어드는것이 아니라 자강력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맞서고 핵공격능력을 비상이 강화하면서 최후승리의 령마루에로 치달아 오르고있다.

얼마전 미국에 또다시 크나큰 공포와 전율을 안겨준 대륙간탄도로켓장착용 수소탄시험의 장쾌한 퇴성도 자기의 힘으로 나라와 민족의 안전을 지키고 천만년 밝은 미래를 열어 나가려는 공화국의 드림없는 의지를 남김없이 과시 해주었다.

제재의 광풍이 더 모질게 불어닥친다 해도 소나무와

같은 조선의 역센 기상은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으며 적대세력의 그 어떤 발악적인 책동도 수소탄과 대륙간탄도로켓을 보유한 조선의 전략적지위를 조금도 변하지시킬수 없다.

강하고 굳세고 힘도 다 갖춘 공화국이기에 미국과의 마지막 대결전에서도,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도 최후승전고를 기어이 울릴 것이다.

소나무가 겨울을 곳곳이 지켜내고 마스한 봄을 맞이 하듯이 조선의 사회주의가 모진 역경과 시련을 이겨내고 머지않아 최후승리의 봄을 맞이하게 되는것은 력사의 진리이고 과학이다.

손승죽

선녀들이 내렸다는 전설속의 계곡을 밟아

◆ 묘향산의 관광길을 따라 ◆



기묘하고 향기를 풍기는 아름다운 산이라 하여 그 이름도 묘향산.

우아한 산봉우리들과 황홀한 경치를 자랑하는 세계의 명산 묘향산에 단풍이 물드는 가을이 왔다.

임진조국전쟁시기 애국적인 증으로서 그 이름도 유명하였던 서산대사가 우리나라의 5대명산을 다 돌아보고 금강산의 아름다움과 지리산의 웅장함을 다 안고있는 명산이라 불렀다는 묘향산이 자기의 일만경치를 오늘도 한껏 펼치고있다.

싱그러운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이 계절 풍만한 자연의 숲속으로 달리는 사람들의 물결

을 따라 얼마전 우리도 기행의 길에 올랐다.

공화국에서는 날을 따라 높아가는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을 위해 수많은 명승지와 명소들로의 관광안내사업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우리를 태운 빠스는 어느덧 묘향산을 가까이 하며 청천강기슭을 따라 경쾌하게 달리었다.

맑고 푸른 청천강의 물결위에 낚시대를 드리운 로인들의 모습이며 강가에서 뛰노는 어린이들의 천진烂漫한 모습에 이어 나지막한 언덕들이 병풍을 펼치듯 하나둘 자태를 드러내면서 묘향산의 시작을 알리는가싶더니 어느새 묘향산기슭에 빠스는 다달았다.

일만폭포 흘러내려 만폭동이나

묘향산의 경치를 탄탄한 포장도로에서 올려다보는것만으로는 부족하여 한시바삐 자연속으로 빠져들고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을 읽은듯 안내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만폭동으로의 등산길은 상원동과 천태동으로의 등산길과는 달리 경사가 급하고 바위들이 많아 미끄럽고 아슬아슬합니다.》

그렇스록 만폭동의 경치에 대한 우리의 호기심은 더해만 갔다. 만폭동등산길이 시작되는 어구에서 얼마쯤 오르니 폭포들이 울리는 《교향곡》의 첫곡을 듣는것 같다 하여 불리우는 서곡폭포가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었다.

희디흰 바위로 날아떨어지는 폭포수의 흘러내림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안내원 한옥주녀성은 《만폭동은 예로부터 일만개의 폭포가 흘러내려 만폭동이라고도 하지만 이 골안이 온통 폭포로 가득차 만폭동이라고 하기도 한다.》며 이제 올라가느라 보면 보다 희한하고 웅장한 폭포들이 수없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 말을 증명이나 하듯 옛날 8형제나무군총각들이 일하다 철참이면 즐겼다는 이야기

가 깃든 무릉폭포가 장쾌한 소리를 울리며 안겨왔다. 1981년 5월 이곳을 찾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무릉폭포의 경치가 참 좋다고 하시면서 사람들이 여기까지 왔다가 길이 험하여 더 올라가지 못하고 돌아간다는데 우리가 먼저 올라가 보고 등산길도 내주어 사람들이 마음껏 등산하게 하자고 하시었다.

그때로부터 등산의 새 로정길이 펼쳐지게 되었고 오늘은 이렇게 온 나라 사람들이 아닌 외국의 관광객들까지 찾아오는 명승지의 탐승길이 펼쳐지게 되었다.

그 탐승길은 먼 옛날 하늘의 선녀들이 무지개를 타고 내려와 목욕을 하다가 총각들이 나타나면 숨곤 하였다는 은선폭포에도, 하늘의 선녀들이 즐겨 놀았다는 유선폭포에도 이어져있었다.

이어 우리는 선녀들이 폭포에 비긴 무지개를 타고 내려와 놀았다는 비선폭포와 우리 민족의 시조인 단군이 도를 닦았다는 단군대에 올라 단군이 과녁으로 삼고 활을 쏘았다는 천주석의 기묘함도 볼수 있었다.

참으로 오를수록 흥미롭고 감탄을 금치 못하게 하는 만폭동으로의 등산길이였다.

이때 어디선가 고요한 골안으로 유정하게 울려퍼지는 물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상원동에서 제일 아름답다는 금강폭포의 락수소리였다.

유정한 개울물과 어울린

가 깃든 무릉폭포가 장쾌한 소리를 울리며 안겨왔다.

1981년 5월 이곳을 찾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무릉폭포의 경치가 참 좋다고 하시면서 사람들이 여기까지 왔다가 길이 험하여 더 올라가지 못하고 돌아간다는데 우리가 먼저 올라가 보고 등산길도 내주어 사람들이 마음껏 등산하게 하자고 하시었다.

그때로부터 등산의 새 로정길이 펼쳐지게 되었고 오늘은 이렇게 온 나라 사람들이 아닌 외국의 관광객들까지 찾아오는 명승지의 탐승길이 펼쳐지게 되었다.

그 탐승길은 먼 옛날 하늘의 선녀들이 무지개를 타고 내려와 목욕을 하다가 총각들이 나타나면 숨곤 하였다는 은선폭포에도, 하늘의 선녀들이 즐겨 놀았다는 유선폭포에도 이어져있었다.

이어 우리는 선녀들이 폭포에 비긴 무지개를 타고 내려와 놀았다는 비선폭포와 우리 민족의 시조인 단군이 도를 닦았다는 단군대에 올라 단군이 과녁으로 삼고 활을 쏘았다는 천주석의 기묘함도 볼수 있었다.

참으로 오를수록 흥미롭고 감탄을 금치 못하게 하는 만폭동으로의 등산길이였다.

이때 어디선가 고요한 골안으로 유정하게 울려퍼지는 물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상원동에서 제일 아름답다는 금강폭포의 락수소리였다.

유정한 개울물과 어울린

러가지 산나물을 뜯으시며 그 효능과 리용방법들도 알려 주시었다. 이곳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1981년 5월 묘향산은 돌로 이루어졌지만 나무가 잘 자란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상원동과 만폭동에 대한 노래를 더 많이 지어 묘향산을 널리 소개하라고 하신 뜻깊은 사적이 깃든 상원물터도 있었다.

산속의 제일가는 사찰 상원암이 있는 골안이라 하여 상원동이라고 한다는 이 등산길에서 우리는 묘향산에서 살던 중들의 무덤인 서부도를 찾았다. 상원동입구에서 상원암까지 3.3km에 이르는 등산길은 만폭동으로의 등산길과는 달리 완만하고 개울을 따라 펼쳐진 산책하기에 좋은 등산길이었다.

안내원의 말을 빌린다면 《만폭동은 사람의 의지와 능력을 시험하는 고행길이라면 상원암으로의 등산길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걷는 려애길》이라는 것이었다.

한낮에도 그들이 저 시원한 탐승로며 맑은 물속에 들여다 보이는 모래알의 반짝임은 산속의 풍경을 그대로 우리에게 선물하고있었다.

이때 어디선가 고요한 골안으로 유정하게 울려퍼지는 물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상원동에서 제일 아름답다는 금강폭포의 락수소리였다.

유정한 개울물과 어울린

금강폭포는 소담하고 아련한 처녀의 머리채와도 같이 흰 바위틈으로 감돌아 내리며 은은한 속삭임을 불려주고있었다.

또 그우에서는 떨어져내리는 폭포수가 마치 구슬이 흘러내리는것 같다는 산주폭포가 만폭동에 못지 않는 폭포수의 매력을 자랑하고있었다.

그 매력에 끌리어 한참이고 서있는 우리에게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에서 왔다는 한성진은 《책에서 보니 저 룡연폭포우를 올라가는 길을 호랑이가 안내해주었다는 전설이 있더군요. 조심해야지 정말 호랑이가 나라날지도 모릅니다.》하며 우스개소리도 슬쩍 섞는 것이였다.

울창한 숲속의 고요함과 진

깊어가는 밤의 서정

상원동과 만폭동에 대한 등산을 마친 우리 일행은 향산에 위치한 청천려관에 숙식하게 되었다. 전통적인 조선식합각지붕을 한 청천려관은 새로 일떠선 건물들의 현대적이고 화려한 멋보다는 고요하고 서정적인 느낌을 강조한 건물인것으로 하여 찾아오는 손님들을 끌어당기였다.

여러층으로 구성된 려관에서 사람들은 탁구를 비롯한 여러가지 체육도 할수 있다.

한쪽에서는 묘향산의 물과 공기가 좋하기에 무슨 말인가

대나무우에 앉은 푸른 이끼들이 자연만이 만들어낼수 있는 순수함과 독특함의 향내를 뿜어내는 절경에 이끌린 우리의 눈앞에 묘향산에서도 으뜸가는 경치를 자랑한다는 상원암의 절경이 안겨왔다.

우리는 이곳에서 19세기의 이름난 명필이었던 김정희가 썼다는 《상원암》의 필체도 볼수 있었고 천여년전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있는 칠성각과 불유각의 고색질은 단청이며 수백년 자란 은행나무, 소나무의 설레임소리도 들을수 있었다.

눈앞에 펼쳐진 묘향산의 황홀한 경치를 눈으로만 보기에 너무 벅찬듯 관광일행은 목청껏 《묘향산아—》라고 소리쳐 불려보기도 하였다.

고 했더니 정말 힘든줄도 피곤한줄도 모르겠다며 탁구를 치는가 하면 또 다른쪽에서는 묘향산의 밤경치에 몸을 잠그고 산책길을 걷는 사람들의 모습도 안겨왔다.

관광의 마지막밤에 있게 되는 일행의 오락회는 그것대로 묘향산관광의 잊지 못할 추억의 한페지로 새겨지였다.

비록 사는 곳과 직업은 서로 다르고 함께 한 관광길은 짧았어도 조국의 아름다움과 조 선민족의 긍지를 함께 느끼고 웃음과 랑만속에 허물이 없어진 이들의 노래와 출판으로 하

여 더욱 흥겨운 밤이었다. 황해남도 문덕군에서 온 박창명부부는 《참으로 아쉽고 짧게만 느껴진다. 매년에는 자식들, 부모님들과 함께 오겠다.》며 꿈같이 흘러간 묘향산 관광의 순간순간을 담은 사진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구김살없이 활짝 웃는 사진속 주인공들의 모습은 이 땅에서 사는 인민들의 기쁨과 행복이 어떻게 꽃피고있는가를 생동히 느끼게 해주었다.

사회과학원 연구사 오영수는 《슬기로운 우리 민족의 재보와 문화가 있는 아름다운 묘향산에서 즐거운 관광의 나날을 보내느라 내 조국의 귀중함을 더욱 뜨겁게 느끼게 된다. 이 아름다운 모든것을 빼앗으려고 날뛰는 미국과 그 추종 세력이 보란듯이 어머니조국을 더욱 훌륭하게 일떠세우는데 나의 모든 지혜와 열정을 바쳐가겠다.》고 흥분된 목소리로 말하였다.

* * 묘향산관광길은 하루하루가 감동과 즐거움으로 이어진 나날들이였다.

떠나기 아쉬워 발걸음을 쉬이 떼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가에는 아름다운 어머니조국에 대한 자랑과 긍지가 한껏 어려 있었다. 그러는 우리들에게 안내원녀성들은 매년에도 이곳에서 다시 만나자고 정겹게 속삭여주었다.

본사기자 강류성



얼마전 미국은 조선의 대륙간탄도로켓장착용 수소탄의 강력한 폭음에 놀라 유엔에서 또 한차례의 《제재결의》라는 것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정계와 군부의 상층인물들이나서서 《북조선의 핵을 인정할수 없다.》, 《모든 선택안이 타당우에 있다.》고 하면서 조선에 핵과 탄도로켓들을 모두 내놓을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흡사 오랜 시간의 프로권투경기에서 연속 강타를 당하고 기진맥진하여 링 밖으로 나떨어진 선수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서서 대들면 다시 되매를 안길 자세

조미대결에서 패자는 미국

조선과 미국은 지구상 최대의 적대관계이며 교전관계이기도 하다. 1953년에 체결된 조선전쟁협정은 전쟁의 완전한 종식을 의미하는것이 아니었다. 임시적인 싸움의 종지를 의미하는것이다. 그래서 정전협정은 언제나 싸움이 다시 일어날수 있다는 소리이다.

하기에 평화를 갈망하는 조선은 조선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줄곧 미국에 평화협정체결을 요구해왔다. 미국이 1000여기의 핵무기를 분계선남쪽에 배치해놓고 핵

를 취하고있는 링안의 선수에게 졌다고 말하라고 요구하는 것을 방불케 한다.

조선의 핵과 대륙간탄도로켓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지금의 복잡한 사태는 국제문제도 아니고 북남관계문제도 아니며 본질에 있어서 조선과 미국사이의 문제, 핵을 잇고 세기를 이어오고있는 조미핵

패자의 《전리품》 요구

이것은 흡사 오랜 시간의 프로권투경기에서 연속 강타를 당하고 기진맥진하여 링 밖으로 나떨어진 선수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서서 대들면 다시 되매를 안길 자세

패자는 미국

로 위협해오는것과 관련하여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비핵화를 주장해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조선의 정당한 요구에 언제한번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오히려 조선의 력멸에서 해마다 대규모 북침합동전쟁연습들을 벌여 놓으면서 정세를 전쟁점경에 놓아주고 조선에 핵선제공격하기 위한 기도를 한두번만 드러내지 않았다.

미국과의 관계에서 평화는 오직 자기 힘으로 지켜야 한다는것을 뼈에 새길대로 새긴 조선은 핵보유의 길을 선택했

고 결과 오늘에 와서는 지구상에 몇 안되는 수소탄보유국, 대륙간탄도로켓보유국, 전략잠수함 탄도탄보유국의 대렬에 당당히 들어서게 되었다.

지금 행성을 뒤흔들고있는 조선의 핵퇴성, 주체란퇴성들은 세기를 이어오는 조미대결의 마지막싸움무대에서 연속

패자의 《전리품》 요구

이것은 흡사 오랜 시간의 프로권투경기에서 연속 강타를 당하고 기진맥진하여 링 밖으로 나떨어진 선수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서서 대들면 다시 되매를 안길 자세

이것이 울리고있는 장쾌한 승전포성들이다. 온 세계의 주목을 끌고있는 조미대결은 종결부에 접어들었다.

이미 승패는 명백하게 갈라져있다. 세인의 눈으로 보건대도 이 력사적인 대결에서 승자는 조선이고 패자는 미국이다.

왜 그렇게 볼수 있는가. 미국은 조선전쟁이래의 총포성 울리지 않은 오랜 기간의 대결에서 대통령을 수없이 교체하며 시종 조선의 체도와 정권을 《붕괴》시키려고 하였으나 그 모든 기도와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 조선은 무너지거나 서방이 바란대로 변화되지는커녕 더 굳세게 자주와 사회주의를 웨치며 행성의 무시할수 없는 강국으로 솟아나갔이다.

조선에 압살하자면 핵을 빼앗아야겠다고 보는 미국은 오랜 기간 저들의 거수기, 유엔까지 발동하여 혹독한 제재를 가하고 군사적위협도 해보았지만 핵과 그 운반수단도 빼앗지 못하였다. 오히려 조선의 핵능력, 탄도로켓능력은 세계가 상상 못한 초고속으로 날로 향상되

패자에게는 요구할 권리가 없다

이것이 울리고있는 장쾌한 승전포성들이다. 온 세계의 주목을 끌고있는 조미대결은 종결부에 접어들었다.

이것이 울리고있는 장쾌한 승전포성들이다. 온 세계의 주목을 끌고있는 조미대결은 종결부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지금 패자가 가소롭게 누구보고 이것을 내놓으라, 저것을 내놓으라 한다. 요구는 패자가 아니라 승자가 할수 있는 권리이다.

그런데도 지금 미국이 조선에 어처구니없는 요구를 하는 것을 보면 지난 조선전쟁때의 일이 떠오른다. 당시에도 미국은 수많은 《상승사단》들과 막대한 무력, 딸라를 다 동원해서도 조선에서 연속 패하고 하는수없이 조선에 정전담판을 제의해 왔었다. 그런 주제에도 속은 살았다고 상대에게 개성을 내놓으라느니, 어디를 달라느니 하면서 군사분계선설정과 관련한 어처구니없는 《요구》를 해냈다.

그것이 전쟁의 최후승리를 자신하는 조선에 통할리 만무하였다. 조선은 아직 정신이

미국이 일방적으로 조선을 핵위협하던 시대는 종말을 고하고 미국의 심장부, 전 령도 가 조선의 핵과 수소탄의 공격사거리에 놓이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였다. 미국이 조선과의 핵대결에서도 여지없이 패한것이다. 미국내에서도 《조선과의 대결에서 미국은 패했다.》, 《조선의 핵을 인

패자에게는 요구할 권리가 없다

이것이 울리고있는 장쾌한 승전포성들이다. 온 세계의 주목을 끌고있는 조미대결은 종결부에 접어들었다.

이것이 울리고있는 장쾌한 승전포성들이다. 온 세계의 주목을 끌고있는 조미대결은 종결부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지금 패자가 가소롭게 누구보고 이것을 내놓으라, 저것을 내놓으라 한다. 요구는 패자가 아니라 승자가 할수 있는 권리이다.

그런데도 지금 미국이 조선에 어처구니없는 요구를 하는 것을 보면 지난 조선전쟁때의 일이 떠오른다. 당시에도 미국은 수많은 《상승사단》들과 막대한 무력, 딸라를 다 동원해서도 조선에서 연속 패하고 하는수없이 조선에 정전담판을 제의해 왔었다. 그런 주제에도 속은 살았다고 상대에게 개성을 내놓으라느니, 어디를 달라느니 하면서 군사분계선설정과 관련한 어처구니없는 《요구》를 해냈다.

그것이 전쟁의 최후승리를 자신하는 조선에 통할리 만무하였다. 조선은 아직 정신이

덜 든 미국이 보란듯이 전 전선에서 연속적인 강타를 들이대었다. 종당에 정전담판회의장에 다시 끌려나온 미국은 적극적인 조선의 요구대로 정전협정에 조인할수밖에 없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꾀려치한 미국이고 허세를 부리기 좋아하는 미국이다.

지금 미국이 세계 《최강》을 떠드는 자기 힘으로도 모자라 추종국가들을 총동원하여 조선에 압박을 가하고 제재를 심화시키고있지만 이미 조미대결의 전세는 미국에 불리하게 기울어졌고 그것을 되돌릴 수단도, 시간도 미국에는 없는것이 현실이다.

조미대결이 종결부에 접어든 지금 요구할 권리는 미국에 있는것이 아니라 당당한 승자인 조선에 있다.

미국은 판세를 바로 보고 부질없는 요구를 걸어치워야 하며 이제라도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것이 미국인들자신을 위해서도 리익이 되는 일이다.

패자의 부당하고 억지스러운 주장을 조선이 들어야 하는것이 아니라 승자인 조선의 정당한 요구를 미국이 귀담아듣고 받아들여야 할 때이다. 그것이 순리이고 어차피 미국은 그렇게 하지 않을수도 없다.

김련옥

핵무기는 살상파괴력에 있어서 재래식무기와는 대비조차 안되는 무기이다. 단 한발의 핵무기로도 적국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고 한개 도시도 재더미로 만들수 있다. 1961년 이전 소련이 진행한 수소탄시험의 경우 높이가 60km, 폭 30~40km의 거대한 버섯구름이 만들어졌으며 100km 바깥에서도 3도화상을 입을만큼 강력한 열이 발생하

핵억제력의 의미

고 후폭풍은 1000km 떨어져있는 곳의 건물유리창을 깨뜨릴 정도였다고 한다. 이런 엄청난 파괴력때문에 핵무기는 일반 재래식무기와는 다른 특이한 위력을 지니게 된다. 핵무기로 직접 적국을 타격하는 기능과 함께 실지 핵을 쓰지 않아도 상대방이 무서워서 감히 자기를 다치지 못하게 하는 억제기능이 그것이다.

핵무기가 가진 강한 억제력은 국제관계사에서 충분히 입증되었다.

지난 랭전시기 다량의 핵무기를 가진 두 적수인 이전 소련과 미국은 다같이 상대방의 핵선제공격을 받아도 핵으로 보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여러차례의 초긴장정세속에서도 누구도 핵사용단추를 누르지 못하였다. 이들과 나만은 아니다. 2차대전 이후 지구상에서 수많은 군사적충돌과 전쟁이 일어났지만 유독 핵보유국들 사이에서만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

핵억제력의 의미

평화를 지향하는 조선이 핵무기를 선택하고 보유하게 된것도 핵무기의 이런 억제능력을 알고 미국의 가증되는 침략위협, 핵위협으로부터 나라와 민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그 결과 오늘에 와서는 세계의 몇 안되는 수소탄보유국, 대륙간탄도로켓보유국의 지위에까지 오르게 되었다. 얼마전 대륙간탄도로켓을 2차례에 걸쳐 성공적으로 시험발사한데 이어 그에 상응할 초강력수소탄의 퇴성을 터친것은 국가핵무력완성의 길에서 이룩된 장쾌한 사변이다.

미국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 올브라이트는 북

조선이 2020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던 핵무기 보유완성을 3년이나 앞당겨 끝냈다고 하면서 《이만한 핵능력은 5대핵보유국만이 보여주었을뿐 아니라, 파키스탄도 실제적으로 보여주지 못했다.》고 실로했다.

국제원자력기구 이전 사무차장은 11일 《미국

중 9명이 사망하는 절망적인 사태가 도래하게 될것이라는 끔찍한 계산결과를 내놓았다.

공화국의 완성된 핵공격능력의 크기는 그대로 억제력의 크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트럼프행정부는 이런 현실에 애써 눈을 가리우고 어리석은 《제재결의》를 조작해내고 《모든 선택안이 타당우에 놓여 있다.》느니 하며

군사적모험의 평가를 드러내고있다. 그것은 자기 스스로 파멸의 함정을 깊이 파는 어리석고 후안무치한 노릇이 아닐수 없다.

공화국은 평화를 위해 핵과 수소탄을 주저들었지만 자기를 압살하려고 전쟁불몽치를 들고 달려드는 악귀를 가만 놔두지 않는다. 만일 미국이 조미사이의 변화된 력확관계를 바로 보지 못하고 무모한 불질을 해낸다면 그 순간은 미국땅이 통째로 재난을 당하는 날이 될것이다.

미국은 얼른 머리를 식히고 핵억제력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다시금 곰곰히 새겨보아야 한다. 본사기자 김철민

《취들의 회의》

며칠전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나라들이 모여 앉아 반공화국 《제재결의》라는것을 또다시 조작했다.

그들의 추태를 보느라니 이소프의 우화 《취들의 회의》가 떠오른다. 고양이때문에 《마을편히》 살수 없는 취들이 하루는 모여앉아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나이 많고 생각깊은 쥐가 고양이목에 방울을 걸자는 기발한 《착상》을 내놓았다. 방울이 달랑 달랑 소리를 내면 고양이

가 온다는것을 제끼 알수 있지 않는가. 문제는 어느 쥐가 고양이목에 방울을 걸러 갈것인가 하는것이였다. 고양이목에 방울을 걸러 갔다가 고

양이밥신세가 될것은 볼듯 명백하니까. 결국 어느 쥐도 《방울달기》에 나서지 않아 《취들의 회의》는 실현불가능한 탁상공론으로 그치고말았다.

우화가 나온 후부터 사람들은 실천을 떠난, 현실성이 없는 것거리들을 두고 《취들의 회의》라고 야유조소하고있다.

지금 유엔을 통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제재놀음은 《취들의 회의》를 신통히도 닮았다.

지난 시기 미국이 공화국을 고립압살하려는 유엔 《제재결의》놀음을 좀 작게 벌려놓았는가. 그때마다 공화국은 령도자의 두리에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미국의

《취들의 회의》

며칠전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나라들이 모여 앉아 반공화국 《제재결의》라는것을 또다시 조작했다.

그들의 추태를 보느라니 이소프의 우화 《취들의 회의》가 떠오른다. 고양이때문에 《마을편히》 살수 없는 취들이 하루는 모여앉아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나이 많고 생각깊은 쥐가 고양이목에 방울을 걸자는 기발한 《착상》을 내놓았다. 방울이 달랑 달랑 소리를 내면 고양이

가 온다는것을 제끼 알수 있지 않는가. 문제는 어느 쥐가 고양이목에 방울을 걸러 갈것인가 하는것이였다. 고양이목에 방울을 걸러 갔다가 고

양이밥신세가 될것은 볼듯 명백하니까. 결국 어느 쥐도 《방울달기》에 나서지 않아 《취들의 회의》는 실현불가능한 탁상공론으로 그치고말았다.

우화가 나온 후부터 사람들은 실천을 떠난, 현실성이 없는 것거리들을 두고 《취들의 회의》라고 야유조소하고있다.

지금 유엔을 통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제재놀음은 《취들의 회의》를 신통히도 닮았다.

지난 시기 미국이 공화국을 고립압살하려는 유엔 《제재결의》놀음을 좀 작게 벌려놓았는가. 그때마다 공화국은 령도자의 두리에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미국의

《취들의 회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을 자력자강의 무쇠마치로 호되게 쳐갈기며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미국의 대조선 《제재결의》는 세기를 이어 계속되고있지만 오늘 공화국은 수소탄까지 보유한 명실상부한 세계적대국, 대륙간탄도로켓보유국으로 우뚝 솟아올랐다.

효력은커녕 의도와는 정반대의 현실을 가져온 것이다.

아무 효력도 없는 이런 《회의》를 백날, 천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갈데없는 《취들의 회의》이다.

김진혁



미군강전 72년, 미군철수 평화협정 체결! 촉구 기자회견

미군을 내쫓고 조국의 자주통일 이룩하자

남조선 시민사회단체들 주장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조국통일법민족련합 남측본부, 민중민주당을 비롯한 19개 시민사회단체들이 8일 서울에 있는 미국대사관앞에서 미제침략군이 남조선을 강점한 때로부터 72년이 되는것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지였다.

발언자들은 미군이 남조선을 강점한 70여년간 민간인학살과 경제적수탈 등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르는데 대해 언급하고 그래서 미국과 한 하늘아래서 절대로 살수 없음을 절감하게 된다고 토로하였다.

미국이 이번에도 강행한 군사적긴장과 반인륜적인 생화학무기실험실설치 등 권자가 그 무슨 안보를 위해 취한 불가피한 조치라느니 뭐니 하고있지만 실

은 미국의 강박에 굴복한 행위임을 누구나 잘 알고 있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남조선에 화만을 가져오게 될 《싸드》와 미군을 내쫓고 자주적인 평화통일세상을 반드시 이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기자회견에서는 회견문이 낭독되였다. 회견문은 미군이 일제 패망이후 남조선에 기여 들어 일제시기의 폭압통치와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며 남조선을 전쟁위협과 독재, 불의가 가득찬 사회로 전락시켰다고 규탄하였다.

미국이 강점 70여년간 군사적긴장과 반인륜적인 생화학무기실험실설치 등으로 남조선국민들에게 해 취한 불가피한 조치라느니 뭐니 하고있지만 실

회견문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제재책동, 핵위협으로 인한 전쟁위기와 분렬은 우리 민족의 힘으로 청산해야 하는 악폐종의 악폐라고 주장하였다.

미군이 없어져야 진정한 평화와 민족의 통일을 이룩할수 있다고 회견문은 지적하였다.

회견문은 모두가 힘을 합쳐 조선반도전쟁위기의 주범, 분렬의 근원인 미군을 철수시키고 조국의 자주통일을 이룩하자고 호소하였다.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참가자들은 《미군은 싸드를 가지고 이 땅을 떠나라.》, 《평화협정 체결하라.》, 《주(한) 미군은 철수하라.》 등의 구호들을 연방 웨치였다. 본사기자

미국에 끌려만 다니는 삽살개

행성을 뒤흔든 조선의 수소탄뢰성에 혼절한 남조선당국이 지금 물인지 불인지 모르고 헤엄쳐대고 있다.

가관은 남조선당국자들이 사대와 굴종의 사술에 매여 끌려다니는 가련한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에 대한 《초강력제재 압박》을 떠들며 어리석은 추태를 부려대고 있는 것이다.

공화국의 대륙간탄도로켓장착용 수소탄시험이후 남조선당국자는 《지금까지와는 다르다는 것을 절감할 수 있도록 북에 보다 강력하고 실제적인 대응조치가 필요하다.》, 《최고 수준의 압박과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떠들어댔다. 얼마전 로씨야에서 진행된 제3차 《동방경제연단—2017》에 참가해서는 여러 나라의 수반들을 만나 《북을 대화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유엔의 제재강도를 더 높여야 한다.》, 《원유공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고아냈다가 하면 아시아태평양연안

나라들의 안보분야관계자들이 모인 《2017 서울안보대화》에 보낸 《축하영상메세지》라는데서도 《동북아시아의 가장 큰 위협은 북의 핵, 미사일도발》이라고 걸고들면서 《대북제재》를 위한 저들의 《노력》에 관심과 지지를 보내달라고 애걸하였다.

한편 남조선의 외교부장관을 비롯한 어중이떠중이들이 반공화국제재강화를 위한 비렬한 청탁의 교를 벌리며 부산을 피워대고 있다.

12일 유엔안보회의의 새로운 반공화국 《제재결의》가 조작되었을 때에도 남조선당국은 대변인을 내세워 《북핵문제해결에서의 의의는 계기로 될 것》이니, 이번 《결의》가 《상당한 압박효과》를 낼 것이니 뭐니 하며 어이없이 놀아대었다.

참으로 가소롭기 그지없는 일이다.

남조선당국이 저들의 구결과 발버둥질로 날로 장성강화되는 공화국의 전략적지위를 깎아내리고 도도

한 진군을 멈춰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그들의 추태는 최후멸망에 더욱 가까워진 상전의 종말을 조금이라도 지연시켜보려는 식민지층의 부질없는 발버둥질에 불과하며 제재를 가할수록 더욱 무섭게 솟구치는 공화국의 막강한 위력을 죽을 때까지도 이해할 수 없는 무지스러운자들의 망동에 지나지 않는다.

공화국에 대한 상전의 압박과 제재소동에 돌격대로 나섬으로써 남조선당국은 《북남대화》와 《평화》의 기만적인 허울마저 벗고 외세에 추종하여 동족을 압살하려는 대결적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내놓았다.

민족적자존심이라는 것은 추호도 없이 외세라던락치는대로 바지가랭이를 붙들고 동족압살을 구걸하는 남조선당국자들의 행위는 리명박, 박근혜의 추태고대르이다.

오죽했으면 남조선 각계층이 현 집권자를 가리켜 《미국의 가랑이밑을 기

며 짓으라면 짓어대는 트럼프의 푸들(삽살개)》, 《제2의 아베》라며 비난을 퍼붓고있었는가.

지금 남조선당국은 눈먼 망아지가 되어 미국을 따라 멸망의 구렁텅이로 더욱 깊숙이 빠져들고 있다. 진것 없고 무력할대로 무력한 저들처지는 인식도 못한채 동족대결에 환장이 되어 설을 지고 불속에 뛰어들고있는 것이다.

남조선당국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상대가 놀아내는 것만큼 대해주는 것이 공화국의 법도이며 공화국의 아량에도 한계가 있는 법이다.

남조선당국이 공화국의 거둬지는 경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돌격대가 되어 분별없이 날뛰다가는 뼈저린 후회와 비참한 자멸밖에 차레질 것이 없다.

본사기자 황금숙

《북을 <굴복> 시키겠다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최근 남조선에서 공화국의 련이은 핵무력강화조치와 관련하여 공화국의 핵보유를 여차피 인정할 수 밖에 없다는 여론이 대세로 되고 있다.

얼마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어느 한 기자회견에서 《북이 핵무기와 이를 운반할 미싸일을 갖추었다.》고 하면서 《사실상 북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그에 맞는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남조선의 한 대학교수는 《이미 북의 핵개발이 완성단계에 도달했는데 여기서 북을 향해 핵을

포기하라고 하면 하겠는가.》, 《현실을 직시하고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한다.》, 《북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남조선언론들도 공화국의 《이번 수소탄시험 성공은 역대 최대급의 폭발력》이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이것은 사실상 북이 수소탄을 보유하는 것이다.》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해나서고 있다. 그러면서 《유엔에서 또다시 《대북결의》를 고안하느라 무진애를 쓰고 있지만 핵무기병기화를 완성한 북이 핵을 포기하라고 하면 하겠는

가.》, 《북에 제재를 가하고 군사적으로 위협하여 《굴복》 시키겠다는 것은 자기희면에 빠진 한갓 환상에 불과하다.》고 조소하였다.

지어 《동아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들까지도 《북경제, 고강도제재에도 회복력 지너》, 《류태도 회복력 지너》, 《류태도 없는 제재에도 북경제는 멀쩡》, 《북핵문제의 함정은 북조선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는데 있다.》, 《북핵폐기는 물론 핵동결도 무의미해졌다.》고 아부재기를 치고 있다.

본사기자

남조선당국이 조선반도 문제에서 무시되었다는 《〈한국〉 소외》론난으로 풀머리를 앓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을 비롯한 보수야당들과 《국민의 당》은 《북이 미국과만 상대하려 하고 있다.》, 《〈한국〉 소외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하면서 현 당국을 공격하고 있다.

남조선의 정책전문가들도 이를 긍정하고 있으며 언론들도 《미국이 북과의 대화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되면 이과정에 〈한국〉은 철저히 배제될 것이다.》라고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지금 남조선에서 여론화되고 있는 《〈한국〉 소외》론난은 세계에서 유일한 식민지하수인인 남조선의 비참한 숙명을 보여주는 생동한 실례라고 해야 할 것이다.

시 실컷 짓어대라

김영일

가관이다
대양건너에서 대조선 《제재결의》 채택되니
개의 속성은 어쩔수 없는가
《지지》, 《환영》이요 《만장일치》요 하며
동네강아지처럼 목이 쉬도록 짓어댄다
미국의 때묻은 주구 남조선당국은

거대한 수림의 산봉우리마냥
세계의 한복판에 거연히 선 나라
자주권과 발전권을 지켜
정의와 진리를 지켜
핵무기를 보검으로 틀어쥔 공화국

민족의 운명도 미래도
그 길에 있기에
천만이 일심으로 추켜든
우리 병진의 기치
목숨처럼 안고사는 인민이다

그 누가 감히 꺾을수 있다더냐
련이은 《제재결의》도
그 어떤 봉쇄도
그 어떤 약함도
절대로 우리 가는 앞길 막을수 없나니

그것도 모르고
상전을 따라 짓어대는 가공한 물골
경망스럽구나
제 주제에 《독자제재안》 마련
한다니
소가 우타 꾸레미 터질노릇이다

짓어대라
짓어대면 짓어댈수록
주구의 가공한 처지만 더 드러나는 법
명심하고 새겨두라
짧은 혀에 긴목이 달아난다는
명구를

남조선은 지금까지 《〈한〉 미동맹》을 놓으면 죽는 명줄처럼 여기면서 미국상전을 섬겨왔다. 그러나 미국은 입만 벌여지면 《굳건한 〈한〉 미동맹》을 떠들어대지만 저들의 목전의 이익을 위해서는 서슴없이 남조선 등 타지는격으로 여기저기서 얻어맞고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피해까지 보고있는 남조선이다.

상전인 미국의 비위도 맞출래, 한편으로는 그에 아니꼬운 태도를 취하는 주변국들을 설득할래, 다 른 한편으로는 내부의 보

끈뻐어진 갓신세

을 헌신짝처럼 차버리고 있다.

남조선당국을 궁지에 빠뜨린 트럼프의 남조선미국 《자유무역협정》 폐기발언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비극은 남조선이 미국만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주변국들을 비롯한 여타에서 처참한 랭대와 무시를 당하고있는 것이다.

《싸드》 배치문제로 하여 미국과 주변국들사이 에 끼워 고래싸움에 새우

수न्छ도 불래 비지땀을 흘리며 부산스럽게 돌아치는 남조선당국의 꼴은 차마 눈을 뜨고 볼수 없는 지경이다.

그야말로 사람이 사대주의를 하면 머지머리가 된다는 련사의 진리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희비극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더욱 가관은 사면초가에 빠진 현 남조선당국이 《〈한국〉 소외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하면서

고 구차스러운 변명을 해대는가 하면 현 당국자가 직접 나서서 공화국의 대륙간탄도로켓시험발사와 수소탄시험을 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걸고들며 주변국들에 《초강도제재》와 《압박》을 구걸질하는 등 존 재감을 과시해보려고 추하게 놀아대고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끈뻐어진 갓신세가 된 남조선 당국의 이러한 추태는 조 소와 비난을 자아내는 광 대국으로밖에 되지 않고 있다.

남조선당국이 지금처럼 계속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미국의 대조선적대시 정책에 추종하면서 민족의 요구와 민심에 역행하는 길로 나간다면 동족대결로 과멸당한 박근혜 《정권》의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본사기자 황진옥

책임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

최근 남조선당국이 공화국의 대륙간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시험완전성공을 구실로 반공화국대결소동에 더욱 광란적으로 매달리고 있다. 집권자가 나서서 미일상전과 전화통화를 가진다. 《싸드》발사대들을 추가배치한다 하며 북세력을 피우는 한편 통일부를 내세워서 《북핵문제해결과 남북관계발전행의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느니, 《긴 호흡으로 〈정부〉의 정책목표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느니 하고 떠들게 하고 있다.

그들이 말하는 《북핵문제해결과 남북관계발전행의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박근혜가 내들었던 《북비핵화와 남북관계개선 선순환》의 복사판으로서 그것을 다시 주어들고 객기를 부리는 남조선 당국의 추태는 어리석다 못해 민망스럽다고 해야 할 것이다.

다 아는것처럼 《핵문제》는 조미사이의 문제이며 남조선당국은 여기 끼여들 아무런 명분도 능력도 없다. 오죽하

면 현 남조선집권자도 저들은 《북핵문제》를 해결할 아무런 능력이 없다면서 개탄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외의 비난속에 용도폐기된 정책 아닌 《정책》을 광고해대는 것은 《북핵문제》에서 완전히 밀려난 남조선당국의 가련한 신세를 그대로 보여줄 뿐이다.

웃지 않을수 없는것은 남조선당국이 떠드는 《대북정책》이 진보개혁세력은 물론 보수세력과 미일상전에게서까지 안팎으로 배척받고있는 것이다.

보수야당들은 《〈대북정책〉을 원칙에서 재검토하여야 한다.》고 고 아대면서 보수떨거지들을 동원하여 《북을 규탄》하는 대규모집회를 벌려 놓는가 하면 진보개혁세력들은 그들대로 《초월민심을 망각한 경솔한 처사》, 《리명박, 박근혜(정권)의 전철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위》라고 비난하면서 《제재와 압박은 해법이 아니다.》, 《과감한 정책적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들이대고 있다.

여기에 트럼프까지 나서서 《대북유화정책》을 로골적으로 질타하고 일본반동들도 언론들을 내세워 남조선당국의 《대북정책》 실패를 련일 비난해나서는 바람에 그야말로 호미난방의 신세에 처한 것이 남조선당국이다.

현실이 보여주는 것처럼 《대화와 압박병행》을 기조로 한다는 남조선당국의 《대북정책》은 《등그런 사각형》이라는 말처럼 극히 모순적이고 전혀 실현불가능한 궤변이다.

서로 대립관계에 있는 공화국과 미국, 남조선의 보수와 진보, 미일상전과 주변국들의 요구를 다같이 걸어안고 북남관계문제를 풀어보겠다는 것이야말로 어리석기 그지없는 망상이 아닐수 없다. 특히 미국과 보수패당의 대결광판에 같이 춤을 추면서 북남관계에 대해 횡설수설하는 것은 상대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이고 온겨레와 초월민심에 대한 기만이다.

결국 허황하기 그지없는 《대북정책》을 추구하여

남조선당국에게 차레진것은 도처에서 외면당하고 배척받는 가련한 신세뿐이다.

남조선당국은 현실감과 대세판단능력이 마비되지 않았다면 이제라도 현 조미핵대결이 어느 단계에 이르렀고 저들의 온당치 못한 망동이 어떤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는가에 대하여 심사숙고해야 한다. 당국의 판단능력과 처신이 얼마나 꼴말처럼 극히 모순적이고 발족시킨 남조선초월민심까지 《〈정부〉는 국민을 배반하였다.》, 《더이상 초월 〈정권〉이 아니다.》고 하면서 등을 돌려대기 시작했는가.

미국과 보수패당의 비위를 맞추며 계속 친미사대, 동족대결정책에 매달리다가 비참한 과멸을 맞겠는가 아니면 온겨레와 초월민심의 요구대로 민족자주의 립장에 서서 동족과 손을 잡고 북남관계 개선의 길로 나아가겠는가 하는 기로에서 남조선당국은 책임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

오현주

작두날에 북을 뺏아민다

공화국의 무진막강한 군사적위력에 혼절한 남조선당국은 지금 미국의 핵전략자산전개와 첨단무장장비 등을 끌어들이는것으로 군사적렬세를 만회하고 거기에서 살길을 열어보려고 안간힘을 쓰고있다.

남조선당국은 《북의 핵공격위협에 고스란히 노출되어있다.》느니, 《심각한 안보위기》니 뭐니 하면서 미국의 핵전략자산들의 조선반도정례배치를 구걸하고있다. 그런가 하면 공화국의 고정 및 이동목표를 《정밀타격》할수 있다고 하는 수백발의 복합유도탄 《GBU—56》과 그것을 장착하기 위한 무기체계개발사업을 추진하며 요격고도 150~500km 되는 미국의 해상

기반요격체계 《SM—3》을 끌어들이어 요격고도 40~150km 되는 《싸드》와 련동시키는 방법으로 공화국의 《핵 및 미싸일위협에 대응》하겠다고 떠들어대고있다. 간과할수 없는것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패거리들이 《1000만 전술핵배치 서명운동》이라는것을 벌려놓고 현 남조선당국에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배치하라고 압을 가하고있는것이다.

남조선당국이 공화국의 군사적위력앞에 질겁하여 아부재기를 치며 군사적광기를 부리는것은 스스로 작두날에 목을 들이치는것과 같은 어리석은 처사이다.

공화국의 핵무력강화조치는 철두철미 반공화국적대시정책에 한사코 매여달리면서 조선

반도정세를 최악의 폭발계선으로 몰아가고 있는 미국을 겨냥한것이다. 초강력수소탄을 비롯한 절대병기를 보유한 공화국앞에서 아무런 실련도 없는 식민지하수인들이 미국의 전략자산이니, 첨단무기니, 전술핵이니 하는것들을 끌어들이겠다고 하는것은 재앙단지를 꺼안겠다는것과 같은 미련한것이다.

자기 운명이 누구에게 달려있는지도 모르고 헤엄치는 남조선당국의 추태야말로 가련하기 그지없다.

남조선당국은 제몸 건사하기에도 숨가빠하는 미국에 기대여 즐망스럽게 날뛰다가는 자멸을 앞당기게 된다는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본사기자 김명성

반전단체성원들 미국대사관돌입투쟁 전개

남조선인 인터넷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남조선의 평화협정운동본부가 11일 《싸드》철거와 미군철수를 요구하여 서울에 있는 미국대사관 돌입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날 단체성원들은 《평화협정 체결하라! 싸드가 지고 미군은 떠나라!》 등의 구호판들을 들고 미국

대사관 정문을 향해 돌진하였다.

이에 바빠맞은 남조선 경찰들이 투쟁참가자들에게 달려들어 폭거를 가하였다.

참가자들은 민중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싸드》배치를 강행하고 조선반도에 서 전쟁을 부추기는 미군의 철수와 조미평화협정체

결을 요구하여 대사관으로 돌진하였다고 강조하였다. 단체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미국이 지난 7일 적수공권의 주민들에게 폭행을 가하면서 원하지 않는 전쟁무기 《싸드》를 강제로 추가배치하였다고 규탄하였다.

본사기자

